

환영사

니샤 소장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환영사

해양과 연안 공동체 관련 무형문화유산은 어쩌면 군소도서개발국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군소도서개발국 주민들의 해양 풍습, 표출, 표현,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본 행사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함께 공동 주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이란 군소도서개발국의 문화적 구성요소들, 특히, 우리의 정체성과 계보를 보여주는 삶과 사회의 현실적인 요소와 상징적인 요소 모두를 넓게 칭하는 용어입니다. 지식과 풍습, 세대 간 전승이라는 무형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도구, 사물, 공예품과 문화공간들은 공동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군소도서개발국은 이들의 상호작용을 해양과 해양사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전전통과 표현, 상징, 공연과 사회적 풍습, 의식, 축제 등의 무형유산은 개발 계획에서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이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물리적 거리두기와 정서적 고립이 두드러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배경으로 열린 만큼, 지금은 해양문화유산이라는 맥락에서 개발의 두 가지 측면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행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풍습, 의식, 행사와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형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미치는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작은 섬, 자신의 집, 자신의 방에 일시적으로 갇혀 있으면서, 가족과 이웃, 방문객,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사교 행사의 중요성을 점점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정서적 닻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무형유산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해볼 때, 코로나19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해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어떤 종류의 경제성장을 원하는가? 누구를 위해 어떤 사회가 되고 싶은가? 이러한 고민을 할 때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문화적 삶에서, 그리고 현재의 기후 상황과 관련한 생물다양성 문제에서 무형문화유산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산업과 전통

적인 창작물들이 관광에 의존하는 경제의 생계지원에 수행하는 역할은 엄청납니다. 이것은 해양 전통과 연안 및 해양자원이 주민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고, 주요 관광지 역할을 하는 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태평양 지역의 관광은 중단되었고 우리는 이것이 무형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다양한 수준의 위기를 경험하는 동안,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평화와 안보 문제는 사람들의 정체성, 문화,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위협받는다면, 사람들은 건강과 경제적 안녕에 대한 고민을 그만둘 겁니다.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는 지식기술 등 아태센터가 다루는 분야와 관련해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디지털 열위에 있는 군소도서개발국에서는 지식의 합법성, 디지털화된 지식의 소유권과 사용 등의 문제로 인해 기술이 침입자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영향을 받은 각각의 군소도서개발국들은 자신들의 무형 해양문화유산을 지키고 대중화하기 위해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지식을 보유한 공동체가 디지털화된 형태의 지식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디지털 기술은 무형 해양문화유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가상화되는 세계에서 무형유산을 화석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니샤

소장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